

일부 6학년 초등학생에서 2년간 지속된 과체중과 부모 비만의 관련성

이가영, 박경원, 박태진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소아에서 과체중 상태가 2년간 지속되는데 부모 비만 여부가 위험요인이 되는 지 알아봄으로써 소아의 과체중 예방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

연구방법: 부산시 일부 6학년 초등학생 695명의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측정된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의 소아 비만 기준에 따라 2년간 과체중에 속하는 군과 나머지 군으로 구분하였다. 6학년 때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모의 신장과 체중을 자가보고 하게 한 후 체질량지수 25 kg/m^2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였다.

결과: 지속적으로 2년간 비만군에 속하는 소아는 114명/695명(16.4%)이었고, 6학년 때 과체중군에 속하는 소아 중 4학년 때에도 과체중에 속하는 소아는 114명/147명(77.6%)이었다. 과체중이 지속된 군과 나머지 군간에 2년간 신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과 체질량지수의 2년간 변화는 과체중이 지속된 군에서 유의하게 컸다($P < 0.001$). 남아 중 23.1%에서, 여아의 10.1%에서 2년간 과체중이 지속되었으며($P < 0.001$), 부모 둘 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 14.2%에서 2년간 자녀의 과체중이 지속된 반면 어느 한쪽이 비만인 경우에 22.8%, 양부모가 모두 비만인 경우에 50.0%에서 자녀가 2년간 과체중상태로 있었다($P < 0.001$). 소아의 성별을 보정한 후 부모가 비만이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의 과체중이 2년간 지속될 교차비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비만인 경우 1.8 (95% 신뢰구간 1.1~2.8), 부모 둘 다 비만인 경우 6.9 (95% 신뢰구간 2.3~21.1)이었다.

결론: 부모의 비만은 초등학교 고학년 소아에서 과체중이 2년간 지속되는 것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비만 관리는 소아에서 과체중 지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.

중심단어: 소아, 과체중, 부모 비만, 지속성